

식당 차리고 편의점 털고 ... 쿡방의 진화

요리에는 사상 첫 경영 도전 ‘윤식당’

게스트가 직접 요리하는 ‘요상한 식당’

‘편의점을 털어라’ 기상천외 레시피 화제

‘집밥 백선생’ ‘수요미식회’ 등 인기 꾸준

한철 바람으로 지나갈 것 같았던 쿡방(요리하는 프로그램)이 노래 경연 프로그램만큼이나 예능가의 확실한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저 재탕 삼탕이 아니라, 내용과 형식도 끊임없이 진화를 거듭하는 중이다.

처음에는 단순히 스타 셰프들의 화려한 개인기를 보여주는 데까지가 한계 아닐까 단정했지만 이제는 연예인과 게스트가 직접 칼을 잡고, 무대는 주방이 아닌 편의점으로 확장됐다.

◇‘윤식당’·‘편의점을 털어라’·‘요상한 식당’…뭐가 새롭나 = 여행 프로그램 등에 ‘맛보기’로 ‘쿡방’ 요소를 가미했던 tvN의 나영석 PD는 이번에는 아예 요리를 전면에 내세웠다. 배우 윤여정, 정유미, 이서진이 함께하니 조합부터 심상치 않은 ‘윤식당’이다. 심지어 친구는 ‘알바생’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인근 섬에서 작은 한식당을 열고 운영하는 이야기를 담은 프로그램으로, 전에 없던 콘셉트다. ‘초짜’ 3명 요리사의 스승으로 셰프 이원일과 홍성진이 ‘윤식당’의 메인 메뉴인 불고기를 만드는 비법을 전수한 것으로 알려져 더 관심을 끈다.

다만 스토리텔링에 능숙한 나 PD의 특성상 요리 그 자체보다는 식당 운영 과정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나 PD는 지난 20일 제작발표회에서 “식당 경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부분”이라며 “비현실적인 그림 속에서 자작만 예쁜 식당을 열고, 낮에 돈으로 밤에 웃고 떠들고 놀며 시청자들에게 대리만족을 주고 싶다”고 말했다.

설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지난 13일부터 정규 편성된 tvN ‘편의점을 털어라’는 블로그나 인터넷 미디어에서만 화제가 됐던 ‘편의점 음식 레시피’를 TV로 옮겨오는 데 성공했다.

사실 누구나 쿡방을 보며 이것저것 따라 해보고 싶다가도 도마와 칼을 꺼내 뭇가 날 것을 썰어야 하는 지점이 오면 마음을 접는 경우가 많다. 그러고는 편의점으로 아식을 사러 간다.

‘편의점을 털어라’는 그 점을 노렸다. 이왕 편의점에 갔다면 몇 가지를 사서 더 맛있게 조합해보자는



tvN ‘윤식당’
올리브TV ‘요상한 식당’
tvN ‘편의점을 털어라’ (사진 위 부터)

것이다. 편의점엔 없는 게 없으니, 레시피가 무궁무진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실패해도 별 부담 없다.

파일럿 방송분에서 토니가 즉석밥과 쌍화차, 호떡믹스로 명절음식인 약밥을 만드는 기상천외함은 이미 큰 화제가 됐다. 첫 정규 방송에서도 베이커리 못지않은 화이트데이 디저트가 탄생했다.

‘편의점을 털어라’와 같은 날 출격할 올리브TV의 ‘요상한 식당’은 주문도 요리도 게스트가 직접 하는 신개념 시스템이다.

이 프로그램에선 여행 가서 먹어 보고 자주 생각나는 음식, 어린 시절 먹었던 추억의 음식 등 다시 먹고 싶지만 요리할 방법을 모르는 음식을 스타들이 셰프와 한 팀을 이뤄 완성해본다.

단순히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에 얽힌 스타들의 추억을 풀어낸다는 점에서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게 장점이다.

◇왜 쿡방인가…“생활 속 선택 아닌 필수 요소” = 신작들이 계속 나타나는 건 기존 쿡방들이 안정된 흥행을 이어가고 있어서다. 쿡방 신드롬을 일으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리연구가 백종원의 tvN ‘집밥 백선생’은 벌써 3번째 시즌을 맞아 최초 여제자인 배우 남상미까지 영입하는 데 성공했다. 만능 간장, 만능 된장, 그 다음 만능 소스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하다.

그가 지상파로 진출한 SBS TV ‘토요일이 좋다-백종원의 3대 천왕’ 역시 전국 방방곡곡 맛집의 요리 고수들이 스튜디오에서 요리 쇼를 벌인다는 콘셉트로 매회 5%대 시청률을 유지하고 있다.

tvN ‘수요미식회’는 소박한 백반집부터 최고급 레스토랑까지 소개하며 미식가들이 품평하는 방식으로 2015년 1월 시작 이래 꾸준한 인기를 자랑한다.

이밖에 신동엽과 성시경이 대가들과 찌지어 매회 한 가지 재료로 요리 대결을 하는 올리브TV ‘오늘 뭐 먹지? 달리버리’, 국내를 넘어 아시아와 유럽으로 떠나 맛집을 돌아다니는 같은 채널의 ‘원나잇 푸드트립 : 먹방레이스’, ‘집밥’을 제대로 못 먹는 걸그룹 멤버들이 전국 집밥 탐험을 떠나는 E채널의 ‘식식한 소녀들’도 동동 튀는 아이디어로 무장한 프로그램들이다.

배종옥·오지은 주연

KBS 2TV ‘이름없는 여자’

내달 24일 첫 방영

배종옥과 오지은이 KBS 2TV 새 일일극 ‘이름없는 여자’의 주연을 맡는다.

오는 4월24일 시작하는 ‘이름없는 여자’에서 배종옥과 오지은은 모성애로 인해 충돌하는 인물들을 연기한다.

배종옥은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악마와 손을 잡은 엄마 홍지원 역을 맡는다.

보육원 출신이지만, 명문대를 졸업하고 대기업 회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다 회장의 안주인 자리까지 차지한 인물이다. 그러나 가까스로 얻은 귀한 아들이 병에 걸리자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려고 한다.

오지은은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이름을 지운 여자 손여리를 연기한다. 한때 재벌가의 딸이었으나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남자와 양부모에게 버림받은 후 아이를 지키기 위해 스스로 교도소행을 택하는 여인이다.

제작진은 “지극한 모성을 가진 두 여자, 그리고 그중 때문에 일어나는 극적 갈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배종옥

오지은

SBS ‘스타일 팔로우’ 내달 20일 첫 방영

공중파 첫 뷰티 프로그램

강승현·소녀시대 수영 MC

SBS TV가 공중파로서는 최초로 뷰티 프로그램을 론칭한다.

SBS는 소녀시대 멤버인 수영과 ‘아시아 최초’ 세계 모델 대회 1위를 차지한 강승현을 MC로 내세운 ‘스타일 팔로우’를 다음 달 20일 밤 12시50분에 첫 방송을 한다.

‘스타일 팔로우’는 스튜디오에서만 뷰티 정보를 전하는 방식이 아닌, 이동식 스튜디오를 통해 무대 뒤 혹은 카메라 밖의 스타의 모습이나 ‘핫플레이스’를 찾아 나



강승현

수영

서는 방식으로 기존 뷰티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고 제작진은 강조했다.

또 스타들의 스타일을 책임지는 메이 크업 아티스트들이 출연해 비법을 전수한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2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 속으로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 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연예나 불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아침연속극 〈아임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소셜 〈그 여자의 바다〉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쁜 좋은 날	10 좋은아침
10	00 세계 물의 날 특별생방송 희망의 물 생명의 물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30 팔도방송 (재)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재)	00 월화드라마 〈역적 : 백성을 훔친 도적〉(재)	00 열린TV 시청자 세상
12	00 KBS 뉴스 12		00 MBC 정오뉴스 20 수목드라마 〈자제발광 오피스〉 (재)	00 SBS 12 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토크라 55 데마스페셜 55 닥터 365
1	00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5 KBS네트웍스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55 숨터 (재)	00 이웃집 찰스 (재)		
2	00 2017 대선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토론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00 2017 대선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 토론	00 2017 대선 국민의당 후보자 경선토론
3	30 코리언 지오그래픽 플러스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유지형	0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재) 55 프리파라 2	00 SBS 스페셜
4	00 4시 뉴스집중	30 여유만만 (재)	2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재)	30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롤러코스터보이 노리 30 강력추천 배틀 트립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 365 15 건강한 토코쇼 내 몸을 부탁해
7	00 KBS 뉴스7 35 공감다큐.사람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토크라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2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일일연속극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24 55 살리는 남자들	55 MBC 일일드라마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영재발굴단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시사토론 '10' 55 숨터	00 수목드라마 〈김과장〉	00 수목드라마 〈자제발광 오피스〉	00 드라마 스페셜 〈사임당, 빛의 일기〉
11	00 KBS 뉴스라인 40 세계 물의 날 토크다큐 〈지구촌 물장수 생명을 낸다〉	10 추적 60분	10 라디오스타	10 웃음을 찾는 사람들
12	30 동행 (재)	10 스포츠 하이라이트 35 세상의 모든 다큐	30 MBC 뉴스 24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양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미국 서부 트래일 그랜드캐니언〉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플라워링 하트(1) 07:30 뽀롱뽀롱 뽀로로 07:45 출동! 슈퍼웬스 08:00 땃땃땃 유치원 1~2 08:30 독막맨 08:45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 09:00 주사위 요정 큐비주 09:15 얼마 까투리(재)	09:30 물랑 09:40 글로벌 아빠 찾아 삼만리(재) 10:30 한국기행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죽음 속주목음과 뽀로포구이〉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세상에 나쁜 게 없다 12:40 지식채널 e 12:45 EBS초대석(재) 13:40 극한직업(재) 14:30 최강전사, 미니특공대 15:00 그림을 그려요 15:05 두기탐험대	15:20 마사와 곰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레전드이어로 삼국전 16:15 허풍선이 과학쇼(재) 16:30 Why - 최고대 호기심파지(재) 16:45 땃땃땃 유치원 1~2(재) 17:15 뽀롱뽀롱 뽀로로 17:30 로보카 폴리 17:45 독막맨(재) 18:00 생방송 토크! 보너스나!~4 19:00 어벤저스: 울트론 레볼루션 19:30 EBS 뉴스 19:50 EBS 스페셜 프로젝트 책대로 한다(재)	20:50 세계테마기행 〈인도양 모리셔스 & 레위니옹 - 신들의 축제 마하 시바라트리〉 21:30 한국기행 〈봄날은 간다 - 내 인생의 봄날〉 21:50 EBS 다큐 프라이م 〈우표뉴스의 사람들〉 22:45 극한직업 〈여목 공작〉 23:35 장수의 비밀 24:25 지식채널 e 24:30 EBS 초대석 〈한국 포크와 블루스의 거장 - 가수 이정선〉

知天命이 되는 **오늘의 운세**

3월 22일 (음 2월 25일 戊申)

子

48년생 무난한 상태에서 대체적인 성과가 보인다. 60년생 활력소가 되어 줄 만할 조건이 주어지게 된다. 72년생 철저한 준비와 보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곤란하다. 84년생 항상 똑같이 보아 왔다면 문제가 있다.
행운의 숫자 : 09, 51

丑

49년생 진지한 자세와 태도가 절실하다. 61년생 조금만 더 나아간다면 목표에 이르게 될 것이다. 73년생 기본적인 것이 튼튼해야 전망이 밝아진다. 85년생 공들여 왔던 일에 대한 호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행운의 숫자 : 63, 22

寅

50년생 상황이 경색되기 전에 응통을 부리는 것이 맞다. 62년생 대동소이하니 조금도 신경 쓸 필요 없다. 74년생 원인을 잘 따져 보아야 대책이 마련 될 것이다. 86년생 파격적인 것만이 제대로 역할을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06, 73

卯

51년생 파도가 높으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63년생 변통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되느니라. 75년생 평상시에 잘 갖추고 있었다면 그에 따른 덕을 보게 되리라. 87년생 차질 없이 예정된 대로 진행된다.
행운의 숫자 : 19, 70

辰

52년생 확신이 서지 않으면 미비점을 찾아내야 한다. 64년생 불합리함을 차지하고 유용한 요건을 이루어 나가는 국세로다. 76년생 희망의 세계로 진입하는 형세이다. 88년생 배려하는 입장에서 서보면 쏘인 일도 풀리리라.
행운의 숫자 : 34, 95

巳

53년생 다소 번거롭더라도 절차대로 투명하게 처리해야 나올 것이다. 65년생 진면모를 제대로 알고 있어야 재능을 피해갈 수 있다. 77년생 도중에 실수가 생길 수도 있다. 89년생 안전에 대한 주의가 요청된다.
행운의 숫자 : 36, 77

午

42년생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천양지차가 되리라. 54년생 오늘 추진했을 때 효율성이 가장 크겠다. 66년생 추진이 필요하도다. 78년생 본전만 찾아도 다행이니라. 90년생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75, 04

未

43년생 경험을 통한 체득의 가치가 크다. 55년생 상응하는 조건에 부합한다면 활성화할 수 있게 된다. 67년생 과감해야만 실행의 효과가 증폭될 것이다. 79년생 희망적인 구상을 하는 계기가 조성될 것이다. 91년생 운이 악하다.
행운의 숫자 : 53, 12

申

44년생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점검해야만 후환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56년생 핵심을 파악하지 않는다면 헛수고에 불과할 것이다. 68년생 지나치다면 부족함만 못하느니라. 80년생 지켜야 할 선은 반드시 준수하자.
행운의 숫자 : 58, 46

酉

45년생 무너진 길을 고쳐 닦는 입장이 된다. 57년생 목표에 한 발짝 더 다가선 셈이다. 69년생 파려려 하지 말고 정면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최선이라 할 수 있다. 81년생 막힌 물꼬가 시원하게 트이는 이치이다.
행운의 숫자 : 48, 75

戌

46년생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 길어질 것이다. 58년생 변화를 살펴 볼 필요가 있느니라. 70년생 바퀴 달린 것은 전부 조심해야 하느니라. 82년생 한 때의 분함을 참으면 백날의 근심을 면하리라.
행운의 숫자 : 68, 49

亥

47년생 옛 것이 훨씬 더 나올 것이며, 구관이 명관이다. 59년생 흥정을 하거나 교섭을 벌이는 형국이다. 71년생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담스럽겠다. 83년생 개별적인 판단을 해야만 실수하지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행운의 숫자 : 88, 07

“전하상담도 바랍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